

제 207호 · 2013년 6월 4일

해운·물류연구본부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임진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상하이국제해운연구센터(SISI), 2013년 항만 물동량 회복 예측
2. 유라시아 그룹, 프랑스 르아브르시 물류허브 구축에 투자
3. 태국, 인접국과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에 대규모 투자 계획 추진
4. APMT, 2013년 1분기 1억 6,600만 달러 이익 달성

물류시장동향

1. China Merchants Holdings 탄자니아 항만 개발에 투자
2. DHL,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동남아시아 투자계획 발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상하이국제해운연구센터(SISI), 2013년 항만 물동량 회복 예측

- 2013년 5월 27일, 상하이국제해운연구센터(Shanghai International Shipping Institute, SISI)는 올해 글로벌 항만의 처리실적이 다소 회복 될 것이라는 예측 보고서 발표
 - 2013년 1/4분기 글로벌 항만 처리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간 증가했음
 - 주요 허브항만의 물동량 증가세는 다소 약세였으나, 중소항만은 두 자리수 증가를 하는 등 강세를 보임
 - 예를 들면, 주요 허브항만인 싱가포르항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고, 벨기에 안트워프 항은 1.7% 증가에 그침
 - 반면에 중소항만인 호주의 헤드랜드(Headland)항, 중국 푸저우(Fuzhou)항과 황화(Huanghua) 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5%, 21.5%, 27.5% 물동량이 급등했음
- SISI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글로벌 항만의 처리실적은 중국 닝보-저우산항이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상하이항, 싱가포르항, 텐진항이 2위, 3위, 4위를 기록
 - 닝보-저우산항은 올해 1/4분기에 1억 8,200만 톤을 처리하는 등 처리물동량 상위 항만에 등극함
 - 상하이항은 닝보-저우산항에 비해 10만 톤이 뒤졌으나, 경험상 강력한 증가세—닝보항과 상하이항의 전년대비 항만물동량 증가세는 각각 1%, 5.9%—에 힘입어 추월할 것으로 예측됨
 - 텐진항도 올해 1/4분기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여 1억 1,600만 톤을 기록하는 등 싱가포르항을 추격하고 있음
 - 즉 텐진항은 북중국에 위치한 다른 세 개 항만인 다롄항, 잉커우(Yingkou)항, 칭다오항의 10% 이상의 물동량 성장세와 미래 개발 잠재성으로 글로벌 항만 중에서 4위를 차지함
- 또한 SISI 보고서는 올해 1/4분기 글로벌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기대치보다 약간 더 회복되었다고 발표
 - SISI는 상하이항 2013년 1/4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774만 TEU로 1위를 기록했고, 싱가포르항이 763만 TEU로 2위를 차지하는 등 이 두 항만의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말함
 - 그 뒤를 홍콩항, 선전항, 부산항, 닝보-저우산항이 따르는데 이들 항만들의 물동량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밝힘
 - 한편 SISI는 부산항과 홍콩항이 다음 3분기 동안 물동량 처리량이 부진하면 선전과 닝보-저우산항이 이들을 추월할 수 있다고 예측했음

< 2013년 1/4분기 세계 6대 항만 컨테이너 처리 실적 >

(단위: 만TEU, %)

순위	항만명	컨테이너처리실적 ('13년 1~3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1	상하이항	774	2.3
2	싱가포르항	763	1.3
3	홍콩항	543	△2.8
4	선전항	529	4.2
5	부산항	422	3.2
6	닝보-저우산항	411	9.2

- 한편 로테르담항이 유럽 컨테이너 항만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에 포함
 - 로테르담항만의 2013년 1/4분기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여 280만 TEU를 기록함
 - SISI는 유럽의 소비재 수요가 축소되어 유럽 항만들의 물동량 전망은 어둡다고 예측함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3.5.28.

이언경 전문연구원 (☎ 02-2105-2919, ekleee@kmi.re.kr)

□ 유라시아 그룹, 프랑스 르아브르시 물류허브 구축에 투자

-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¹⁾, 유럽-아시아 간 수출입 전용 물류허브 개발에 2,200만 유로 투자
 - 유라시아 물류허브(Eurasia Logistics Hub)는 프랑스 르아브르시(Le Havre)에 들어설 것이며 최대 연간 8,000 TEU²⁾까지 물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르아브르항에서 처리된 물량의 56%가 아시아지역 화물이었으며, 노르망디(Normandy) 부두에서 매일 두 번 출항하는 화물선에 의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유라시아 그룹은 항에서 인접한 부지 14ha, 총 78,000m² 규모의 3개 창고를 르아브르시로부터 획득
 - 해당 창고들은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건축자재, 가정용품, 가구, 장식품 등 대규모 수입물량을 취급하는 '센터 유라시아(Centre Eurasia)'로 개조될 것임
 - 센터 유라시아는 상기 품목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업에게 500~3,000m² 규모의 공간을 제공, 해당 기업이 프랑스 및 유럽을 대상으로 보관 및 분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허브에서 취급되는 수출화물은 와인 및 증류주 등 고급화물이 주를 이룰 것임
 - 또한 제품의 전시를 위한 쇼룸공간도 마련될 것임
- 물류허브 개발은 3단계로 나뉘어져서 단계적으로 개발 예정
 - 1단계 40,000m² 창고는 2014년 봄에 완공될 계획이며 약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2단계 및 3단계는 향후 3년에 걸쳐 추진될 것이며 전체 완공 시 약 7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 : www.lloydsloadinglist.com 2013.5.29.

김홍매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1) 파리지역에 근거한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은 뉴욕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 알터넥스트(Euronext Alternex) 시장에 등록되어 있으며 초기 섬유와 가죽제품의 수입을 시작으로 이후 자산투자까지 사업 범위를 다양화 시켜왔고, 현재는 주로 파리지역에 총 30만 m²의 빌딩들을 관리하고 있음.

2) 현재 북유럽에서 처리되고 있는 연간 물동량임.

□ 태국, 인접국과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에 대규모 투자 계획 추진

- 태국 정부는 철도연결 확장에 대규모 투자 결정
 - 태국 정부는 지난 달 55개 철도연계사업에 약 760억 달러를 배정하였음
 - 예산의 70% 가까이가 31개 철도 개발사업에 사용될 것이며, 일부는 방콕 도시고속수송 사업 및 고속철도 연결, 그리고 나머지는 수상 및 항공 운송에 할당될 것임
 - 또한 태국 교통부 장관 차드차트 싯티펀트(Chadchart Sittipunt)는 동측 해안의 람차방(Laem Chabang)항의 개발 및 확장, 그리고 연결철도의 복선화 계획 중이라 밝힘
 - 태국 정부는 전체 운송수단 중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2%에서 40%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태국은 현재 2개 노선의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 중
 - 하나는 방콕(Bangkok)-치앙마이(Chiang Mai) 간 노선으로, 양 지역간 이동시간은 3시간 반이 될 것이며 총 건설비용은 약 100억 달러가 될것임
 - 또 다른 노선은 방콕-농카이(Nong Khai) 간 노선으로 건설에 약 66억 달러가 소요될 것임
 - 두 개 사업 모두 내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고속철도 건설보다는 방콕-람차방간 노선 등 기존노선의 복선화 및 간선철도노선의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그 외 중국 및 미얀마 등 이웃국과의 철도연결 사업도 추진 중
 -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Vientiane) 및 중국 남서에 위치한 쿤밍(Kunming)과 태국을 연결하는 철도건설을 계획 중임
 - 그리고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철도시스템과 태국 철도시스템을 연결하는 계획도 수립 중임
- 태국은 또한 미얀마를 연결하는 주요 4대 도로건설 사업을 주변국 경제개발 협력기구(Neighbouring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Neda)의 재정지원으로 추진 중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함께 투자하는 첫 번째 도로건설 사업은 태국 딱(Tak)주의 매솿(Mae Sot)과 미얀마의 수도 양곤(Yangon)을 연결하는 400km 길이의 2차선 도로임
 - 해당사업에 대한 조사 및 설계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는 매솿부터 양곤을 거쳐 인도까지 연결되는 1,500km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임
 - 두 번째 사업은 태국 뿌라쭈업 키리 칸(Prachuap Khiri Khan)의 단 싱콘(Dan Singkhon)과 미얀마 남부의 미에익시(Myeik)¹⁾를 연결하는 190km 길이의 도로건설임
 - 세 번째 사업은 미얀마의 드웨이(Dawei)와 태국의 칸차나부리(Kanchanaburi)를 연결하는 110km 도로건설임

1) 미얀마 미에익시에는 태국으로 목적지로 하는 해산물 수출의 주요 환적항이 위치하고 있음

- 세 번째 사업을 통해 드웨와 안다만해(Andaman Sea)가 태국 동쪽 해안 및 람차방 항에 연결 될 것임
- 네 번째 사업은 칸차나부리(Kanchanaburi)의 삼탑로(Three Pagodas Pass)를 거쳐 양곤과 태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임
- 태국은 이러한 대규모 육상 수송네트워크 건설사업 추진으로 향후 육상운송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무역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자료 : www.cargonewsasia.com, 2013.5.27.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 APMT, 2013년 1분기 1억 6,600만 달러 이익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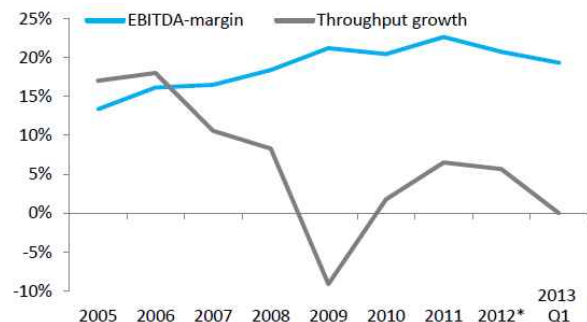
- 덴마크 머스크(AP Moeller-Maersk) 그룹의 계열사이며 GTO(Global Terminal Operator)인 APM Terminals(이하 APMT)는 2013년 1분기 1억 6,600만 달러 세후 순영업이익(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NOPAT)을 달성¹⁾
 - 2013년 1분기 Operational cash flow는 2억 4,200만 달러이며, 투자자본순이익률(Return On Invested Capital, ROIC)은 12.0%임
 - 세계 컨테이너 시장은 3% 성장한 반면, 2013년 1분기 컨테이너 처리량은 860만 TEU로 전년 동기와 동일
- APMT는 2013년 1분기에 영향을 미친 개발계획을 발표
 - 지난 2012년 터키의 Petkim항 신규터미널(Aegean Gateway Terminal, AGT) 건설 및 운영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운영기간은 28년으로 2015년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브라질 산토스 터미널 건설이 완료되어 2013년 2분기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
- 머스크 그룹은 2013년 1분기 7억 9,000만 달러의 이익을 달성하였으며 작년 동기(11억 7,500만 달러) 대비 32.8% 하락
 - 2013년 1분기 ROIC는 8.0%이며, 2012년 1분기 ROIC는 10.2%임

< APMT Financial Highlights >

(USD million)	Q1 2013	Q1 2012	Change	FY 2012
Revenue	1,040	1,065	-25	4,206
EBITDA	201	222	-21	871
Profit (NOPAT)	166	226	-60	701
Operating cash flow	242	185	57	910
Throughput (TEU m)	8.6	8.6	0	35.4
ROIC (%)	12.0	20.1	-8.1	15.2

자료 : INTERIM REPORT Q1 2013, 2013.5.17.

< Volume growth and margin development >



* Only EBITDA margin for FY12 has been restated according to IFRS 11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3.5.22.

최은혜 연구원 (☎ 02-2105-2838, choeeunhye@kmi.re.kr)

1) 지난 2012년 1분기에는 2억 2,600만 달러의 세후 순영업이익을 달성

□ China Merchants Holdings, 탄자니아 항만 개발에 투자

- China Merchants Holdings는 탄자니아 정부와 항만개발, 경제경제구역 및 철도연결 건설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
 - 비용은 약 1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으나, 그 이상으로 자금이 투입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있음
- 신규항만은 탄자니아 수도에서 북쪽으로 약 75km 거리에 위치한 Bagamoyo에 건설 될 예정으로 항만 건설 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항만의 적체되고 있는 물동량 처리 상황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탄자니아 정부는 중국 정부의 투자를 환영하면서 많은 중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구체적으로 중국기업의 향후 투자내용과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항만, 경제특별구역, 철도 연결 및 제반시설 등의 투자금액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
 - 탄자니아 항만청의 임원은 신규항만 건설이 2015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르에스살람 항만은 탄자니아의 2012년 GDP의 60%에 달하는 물량을 처리하였음
 - 아울러 2012년 7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처리한 물량은 총 831만 4천톤으로 지난해 동기간 보다 20% 상승함
- 탄자니아는 동부아프리카의 내륙국가들(콩고 민주공화국, 잠비아, 말라위, 부룬디, 우간다 등)의 수출입 게이트 역할을 함
 - 따라서 현재 과부하에 있는 다르에스살람 항만의 물동량을 신규항만과 나누어 처리함으로써 지체되는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유치 할 수 있는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자료 : www.hellenicshippingnews.com, 2013.5.31.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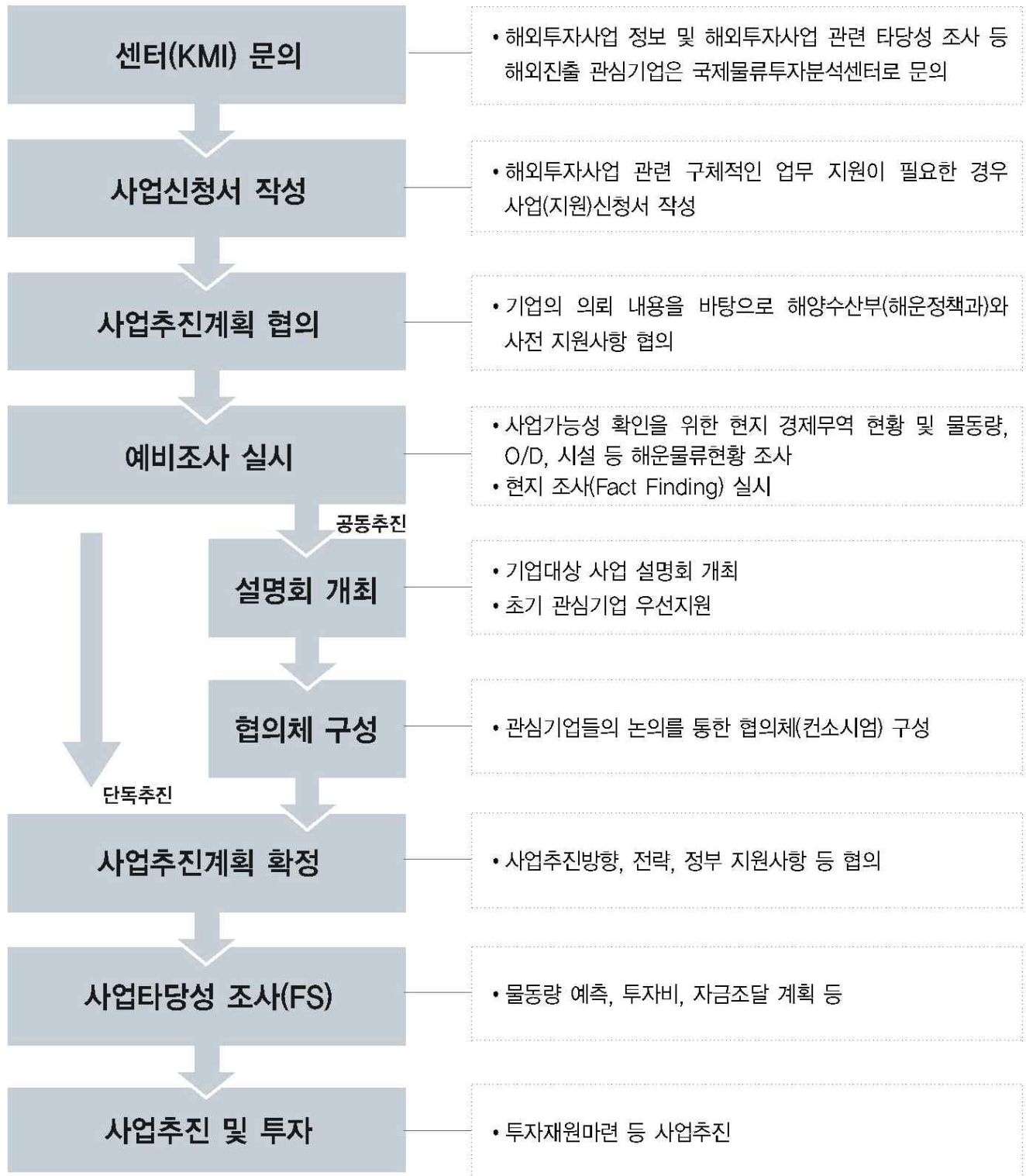
□ DHL,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동남아시아 투자계획 발표

- DHL은 2013년 말까지 동남아시아 전략 지역 7곳에 다용도 물류시설 가동예정
 - DHL은 동남아시아에 1억 8천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최신 IT솔루션을 도입한 물류시설 건립과 인력 교육 등을 강화하여 차후 2-3년간 사업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할 계획
 - 물류시설은 인도네시아 Cimanggis에 있는 17,000m² 규모의 맞춤형 소비재 산업과 태국 Bangna에 있는 소비재, 패션 산업, 베트남 Bac Ninh의 소비재, 전자산업들을 위해 투자되었으며 현재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에 물류시설을 추가로 건설 중임
 - DHL은 2015년까지 새로운 물류시설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인력은 65% 증가한 2만 5천명, 창고 용량은 50% 확장된 140만m² 규모로 확대할 예정
 - DHL은 사업 영역의 확장을 위해 지역의 물류 수요에 따라서 동남아시아 내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다른 지역에 신규 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

자료 : nationmultimedia.com, 2013.5.28.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